



불확실한 세무 & 관세 환경에 대한 전략적 대응

2025 아시아태평양 세무 & 관세 복잡성 서베이

AP Tax Complexity Series | 5th Edition

Leader's Mess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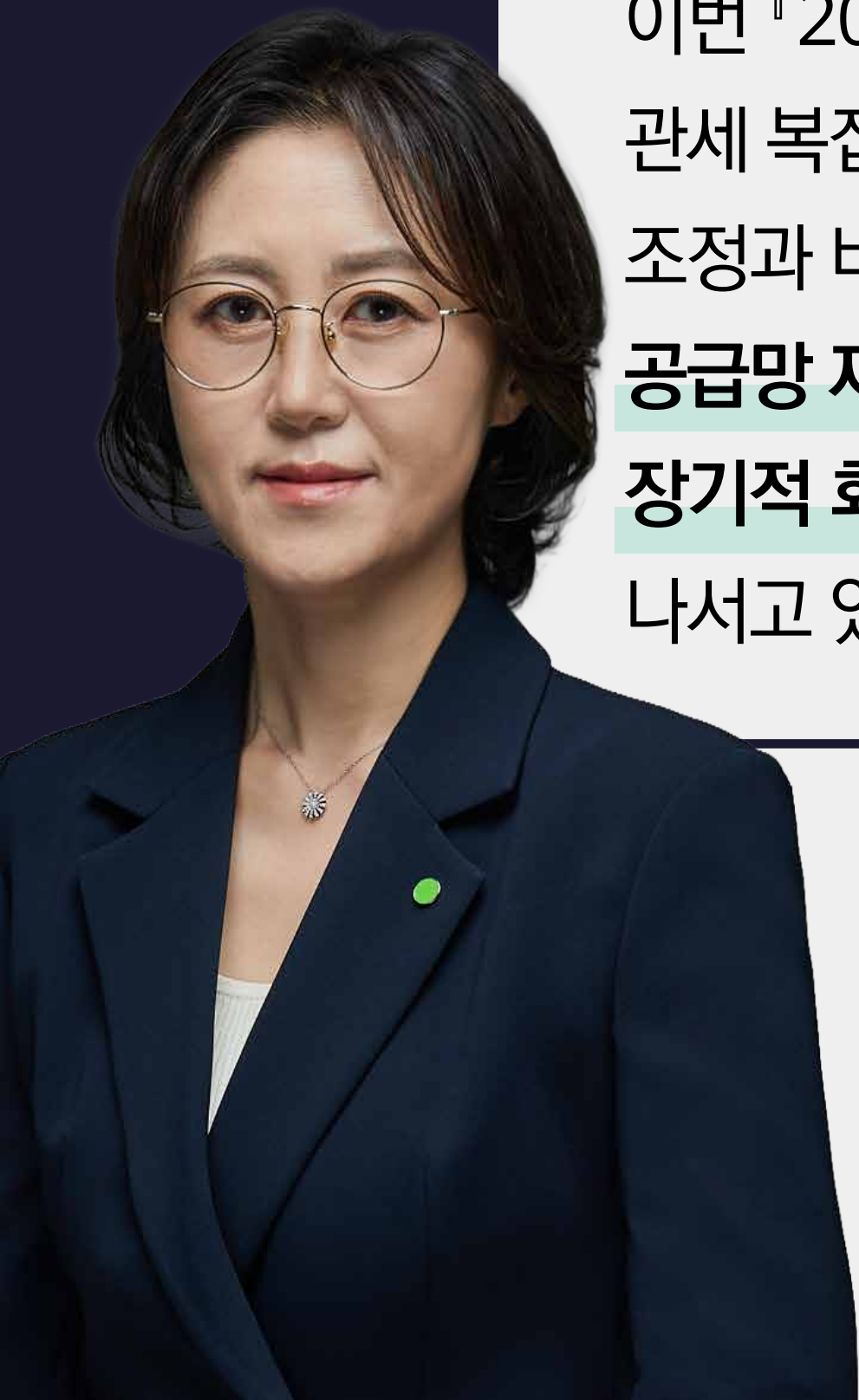
“

세무 및 관세 전략은 이제 단순한 규제 대응을 넘어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경영 어젠다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긴장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보호무역 강화와 공급망 재편, 필라2 논의, AI 기반 규제 집행 확대 등으로 세무·관세 환경의 복잡성이 새로운 경영 환경의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2025 아시아태평양 세무 및 관세 복잡성 서베이』는 기업들이 가격 전략 조정과 비용 통제를 통한 단기 대응과 함께, **공급망 재편과 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해 장기적 회복탄력성과 민첩성 확보**에 나서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김지현 파트너

세무자문부문 리더 | 한국 딜로이트 그룹



서베이 방법론



조사 대상

✔ 아태 소재 기업 고위 임원 및 전문가 363명



조사 기간

✔ 2025년 8월 1일 ~ 9월 21일



포함 국가

✔ 한국, 호주, 중국,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미얀마,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 태국, 베트남



조사 방식

✔ 공식 이메일 초청 + LinkedIn 공개 참여 기반 온라인 설문



분석 방식

✔ 정량 설문 결과 + 고객 논의, 시장 관찰, 딜로이트 연구 기반 정성 인사이트 종합 반영

상세한 내용은 리포트 전문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우선순위로 떠오른 안정성 확보



기업이 가장 우려하는 지정학적 리스크는 '불안정성'

Q. 불확실한 지정학적 환경 속 주요 우려 요인은?

	1위	불안정성	34%
	2위	비용 압박	30%
	3위	장기 사업계획 수립 어려움	19%
	4위	공급망 차질	16%

무역정책 전망은 '예측 불가'

Q. 향후 12~24개월 무역정책 전망은?

	1위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불확실	45%
	2위	추가 관세 인상 예상	26%
	3위	기존 정책 표준화 예상	18%
	4위	관세 인하 및 철회 예상	11%

이제 안정성 확보는 리스크 관리가 아니라
기업 경쟁력의 핵심 조건

커지는 조세 분쟁 리스크

정교해지는 세무조사, 커지는 기업의 방어 부담

- ✔ 조세 분쟁, 발생 빈도는 낮지만 한번 발생하면 세금부담과 신용도까지 영향 주는 고영향·저빈도 리스크
- ✔ 세무당국의 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로 조사·감독 더욱 정교화
- ✔ 단순 거래 데이터만으로는 사업 목적과 의사결정 배경 설명에 한계

기업이 꼽은 가장 큰 조세 분쟁 리스크



35%

사업 목적이
불분명한 거래 구조



33%

세법 적용 오류



18%

증빙 서류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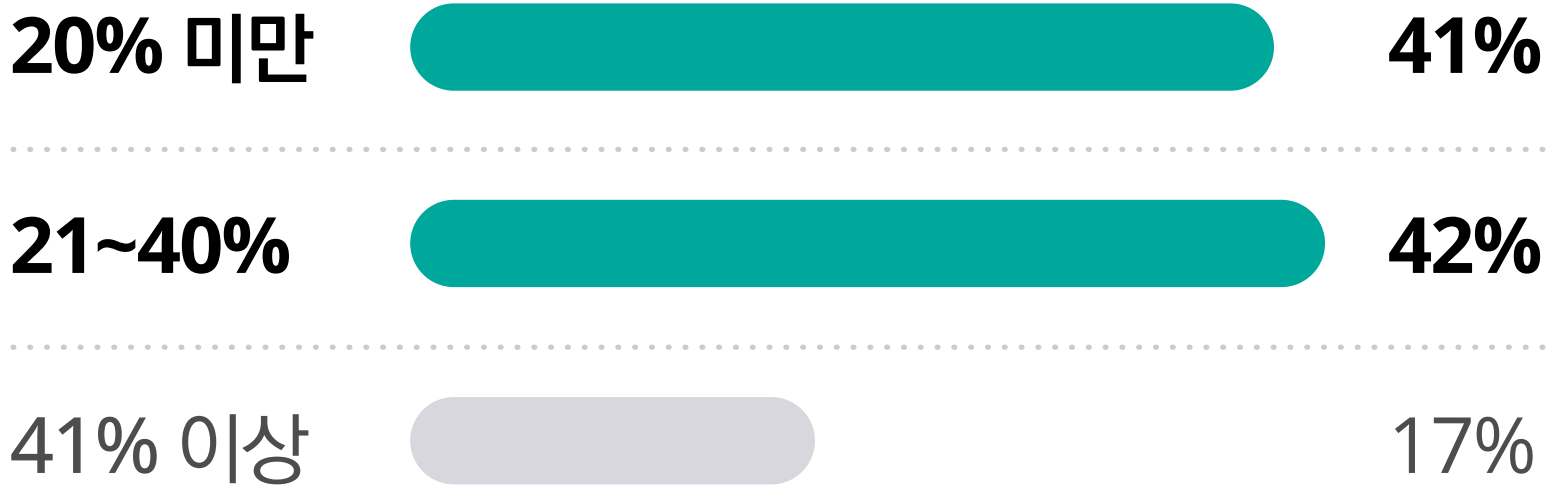
미래의 세무 리스크는 세금이 아니라
설명하지 못하는 데이터에서 시작

낮은 비용 충격에도 공급망 재편 나서는 기업들



기업 83%가 관세 비용이 40%만 증가해도 공급망 재편 검토

Q. 공급망 재편을 검토하는 관세 비용 상승 임계치는?



비용 증가는 단순한 운영 부담이 아니라



공급망 재편



거래 구조 조정



가격 전략 변경



M&A 검토




전략적 의사결정을 촉발

단기 대응책으로 부상하는 가격 조정

관세와 규제 불확실성 커지면서 비용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은 구조 개편보다 가격 조정 먼저 선택

관세 변화에 대한 기업의 대응

1위	 대응하지 않음	41%
2위	 가격 전략 조정	26%
3위	 대체 공급원 확보	13%
4위	 신규 무역 협정 및 파트너십 모색	10%
5위	 비용 자체 흡수	6%

이전가격 조정 현황

1위	 아직 조정하지 않음	38%
2위	 조정 계획 없음	31%
3위	 이전가격 조정	20%
4위	 내부거래 구조조정	11%





가격 조정은 가장 빠르고 유연한 대응 수단이지만,
장기적으로 비용은 '관리 대상'이 아닌 '전략 변화의 신호'

세무 전략, 이제는 이사회 핵심 의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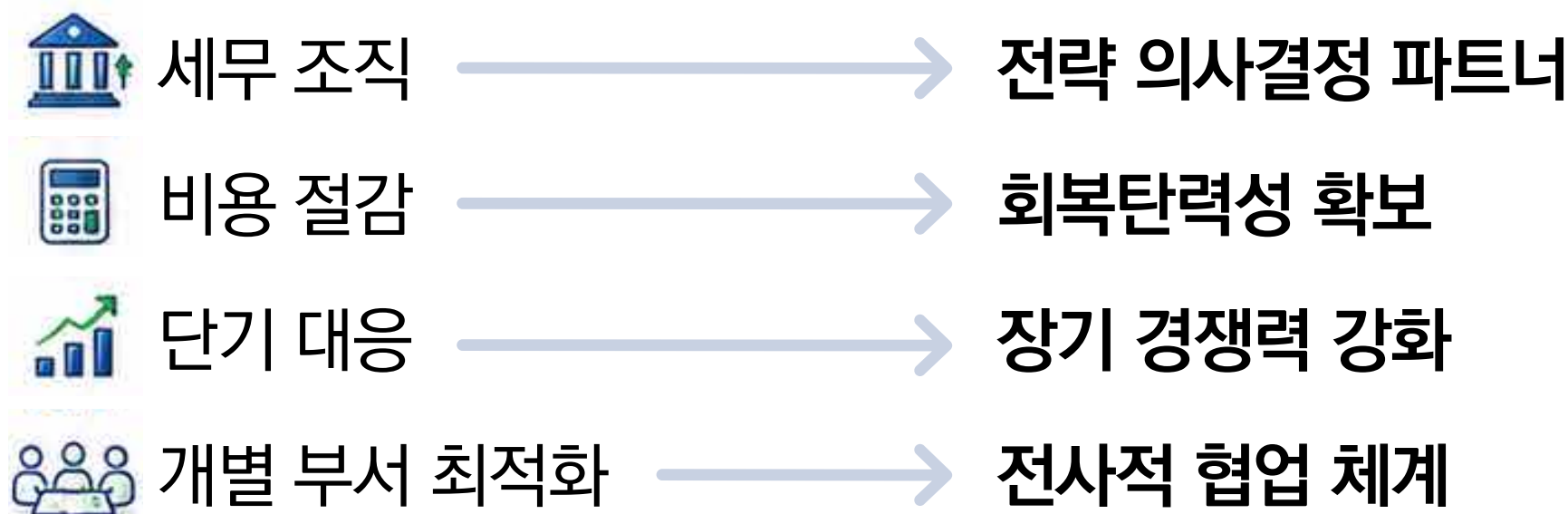
세무는 더 이상 컴플라이언스 기능이 아니라,
공급망, M&A, 운전자본, 디지털 전환까지 연결하는
전사적 전략 기능으로 진화

기업 69%가 비용보다 안정성과 전략적 정렬을 우선시

Q. 공급망 재편 시 최우선 고려사항은?

1위	 신뢰성과 안정성	36%
2위	 장기 목표와의 전략적 정합성	33%
3위	 가장 낮은 비용	16%
4위	 속도와 물류 효율성	8%

기업이 달라지고 있다



세무 및 관세 복잡성 대응을 위한 4대 전략

복잡성이 일상이 된 시대,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라이프사이클 기반 대응: 단기 대응에서 장기 전환으로

- ✔ 가격 조정과 비용 통제로 단기 충격 흡수
- ✔ 공급망 재편, M&A 검토로 장기 회복탄력성 확보
- ✔ 시나리오 플래닝을 통한 선제적 대응 강화



디지털 기반 역량 강화: 컴플라이언스에서 전략 파트너로

- ✔ 데이터 수집·검증·보고 자동화
- ✔ AI·자동화를 통한 운영 효율화
- ✔ 디지털 기반 세무 운영 모델 구축



전사 통합 대응 체계: 세무를 경영 의사결정 중심으로

- ✔ 세무-재무-법무-공급망 협업 강화
- ✔ 공급망, M&A, 투자 의사결정 초기부터 세무 참여
- ✔ 글로벌 협업 체계 구축



규제당국과의 전략적 협력: 분쟁 예방이 최고의 대응

- ✔ APA, 사전세무판정 활용
- ✔ 데이터 및 보고 체계 일관성 확보
- ✔ 선제적 소통을 위한 세무 확실성 제고

딜로이트가 제시하는 '전략적 대응 나침반'

복잡성을 경쟁우위로 전환하는 3가지 핵심 축

비용 신호

변화의 조기 경보 체계



- ✓ 가격 및 현금흐름 민감도 모니터링
- ✓ 비용 압력을 전략 변화의 신호로 활용
- ✓ 선제적 대응을 위한 시나리오 플래닝

전략적 정렬

회복탄력성 확보의 기반



- ✓ 공급망 재편 및 최적화
- ✓ 이해관계자 간 협업 강화
- ✓ 장기 목표와 운영 전략 정렬

실행 역량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동력



- ✓ 디지털 인프라 및 데이터 역량 강화
- ✓ 자동화 및 운영 효율성 제고
- ✓ 민첩한 의사결정 체계 구축

한국 딜로이트 그룹 전문가

세무자문부문

세무자문부문은 국내·외 조세 규정과 국제 조세 이슈 등을 분석하고 딜로이트 글로벌의 자원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고객이 세무 관련 위험요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해 기업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전문가로 구성된 세무자문부문은 기업 세무, 국내·외 투자 자문, 기업 인수·합병 자문, 이전가격 자문, 회계 및 세무 아웃소싱, 해외 파견 임직원 세무 및 과세 자문 등 다양한 세무 분야에서 차별화된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김지현 대표

세무자문부문 리더

☎ 02 6676 2434

@ jikim@deloitte.com

우승수 본부장

M&A & International Tax

☎ 02 6676 2452

@ sungwoo@deloitte.com

이용찬 그룹장

이전가격그룹

☎ 02 6676 2828

@ yongclee@deloitte.com

인영수 파트너

이전가격그룹

☎ 02 6676 2448

@ cin@deloitte.com

유정곤 그룹장

Customs and Global Tax

☎ 02 6676 2561

@ jyou@deloitte.com

최승웅 본부장

기업세무 1본부

☎ 02 6676 2517

@ seungchoi@deloitte.com

임홍남 본부장

기업세무 2본부

☎ 02 6676 2336

@ honglim@deloitte.com

이신호 그룹장

International Tax Leader

☎ 02 6676 2375

@ shinlee@deloitte.com



앱스토어, 구글플레이/카카오톡에서 '딜로이트 인사이트'를 검색해보세요.
더욱 다양한 소식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Deloitte.

Contact us

krinsightsend@deloitte.com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본 보고서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저작권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저작권자”)에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이 가능하고,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상업적 활용 기타 영리목적 이용시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 보고서의 이용시, 출처를 저작권자로 명시해야 하고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없이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